

일본 신종교의 개벽운동*

- ‘요나오시’를 중심으로 -

야규 마코토(柳生 眞) 연구교수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19세기 일본의 도쿠가와(徳川) 막번체제(幕藩體制) 붕괴 시기부터 근대 초기에 일어난 수많은 신종교 중에서도 특히 낡은 봉건적 사회질서를 부정하면서 메이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서구근대화에도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새로운 이상세계를 제시한 일본판 ‘개벽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종교들을 다루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주로 다음 세 가지이다. 먼저 봉건사회가 동요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 중에서 저절로 일어난 세상 변혁의 소원이 담긴 ‘요나오시(世直し)’의 관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나오시’는 원래 흥사를 경사로 바꾸는 주문이었으나 에도시대 중기 무렵부터 봉건통치체제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실제로 서민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6S1A5B89144400)

이 지배층에 대한 봉기·폭동인 ‘잇키(一揆)’나 부유한 상인·지주·고리대 등의 집과 창고를 습격, 파괴하는 ‘우치코와시(打壊し)’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돌발적인 민중 소동인 ‘에에자나이가’나 순례운동인 ‘오카게마이리’로 폭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민중 속의 에너지를 수렴하고 체계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그리고 만민평등의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 민간 신앙운동인 후지코(富士講)나 나카야마 미끼(中山みき), 이토 로쿠로우베이(伊藤六郎兵衛), 데구치 나오(出口なお),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등 민중 속에서 일어난 교조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천리교(天理教), 마루야마교(丸山教), 오오모토(大本) 등의 개벽종교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민중 속에서 일어난 그들 ‘요나오시’ 개벽종교들 제시한 새로운 이상 세계와 인간상, 그리고 그들이 메이지정부가 내세운 서구근대화와 국가신도 체제에 저항·대응하면서 각각의 이상을 추구한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현실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그 대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외치고 민중들도 풍년과 순한 기후, 무병무사와 행복을 누리는 밝은 신세계의 도래를 설파하고 역사의 혼란기에 해대는 민중들의 구제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주제어: 요나오시, 개벽종교, 천리교(天理教), 마루야마교(丸山教), 오오모토교(大本教)

Ⅰ. 서론: ‘요나오시’에 대하여

사전을 보면 ‘요나오시(世直し: 세상 뜯어고치기)’라는 낱말은 원래 지진이나 벼

락을 피하는 주문, 또는 널리 흥사를 경사로 바꾸는 목적으로 일부로 경축하는 주술적 행위, 세상이 나쁜 상태를 고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에도시대 중기이후 도쿠가와 봉건제 하에서의 무거운 세금 부담과 압정, 화폐경제의 침투에 의한 빈부격차의 증대 등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1784년, 다누마 오키토모(田沼意知)¹⁾이 사노 마사코토(佐野政言)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상 사람들은 사노 마사코토의 무덤에 ‘요나오시 대명신(大明神)’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그의 의거(義擧)를 기렸다. 이렇게 민중의 의식 속에 떠오른 ‘요나오시’의 신은 민중의 요구를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주장되게 되면서 19세기에는 ‘요나오시’ 관념이 일본 민중 사이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다.²⁾ 특히 1858년의 일본 개국 이후 생사(生絲)나 차(茶)의 수출 증가에 따라 물가가 급격히 올라간 것, 당시 막부와 각 번(藩)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민중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일본 국내의 정세의 긴장으로 각 번이 군량미를 비축한 것으로 풍년 때에도 쌀이 유통되지 않게 되면서 쌀값이 폭등한 것 등이 겹치면서 ‘요나오시 잇키(世直し一揆)’라고 불리는 잇키(민중 봉기)나 우치코와시(打ち壊し, 민중의 악덕상인·고리대·호농·촌리(村役人) 등에 대한 가옥 파괴, 약탈 등)이 일본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요나오시 잇키 자체는 종교적 배경이 희박하고 기존의 권력구조 안에서 ‘인정(仁政)’을 요구한 것이었다(구체적으로는 흉년 시의 구휼, 세금 감면 등). 잇키·우치코와시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이익과 정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기본적으로는 부잣집을 약탈하더라도 빼앗은 재물을 사사로이 가져가지 않고 주변 마을에 분배하는 등의 윤리성도 갖추고 있었

1) 다누마 오키토모(田沼意知, 1749-1784)는 다누마 오키츠구(田沼意次, 1719-1788)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 오키츠구는 악화된 도쿠가와막부의 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혁정치를 주도했다. 상업 자본을 중시한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정치를 통해 막부 재정을 개선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횡행되면서 오키츠구와 그를 보좌한 아들 오키토모는 민중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2) 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 〈世直し〉, 平凡社 <https://kotobank.jp/word/世直し-654673> 참조.

다. 그러나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기존의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지도자는 사형 등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한편 ‘요나오시’의 움직임이 ‘에에자나िका(ええじゃないか)’나 ‘오카게마이리(おかげまいり)’라고 불리는 소동으로 표출될 경우도 있었다. ‘에에자나िका’는 이세 신궁(伊勢神宮) 등 신사의 부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에에자나िका(종구나)”라고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와 미치듯 춤추고 다니는 행동이다. 이 때 “에에자나िका”의 목소리와 함께 ‘요나오시’나 정치정세를 노래로 부르기도 한 점에서 사회 변혁을 호소하는 민중운동으로 이해된다. ‘오카게마이리’의 원래 뜻은 신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신사·절을 참배하는 것으로 특히 신궁 순례를 가리켰다. 이것은 이동이 통제되었던 일반 서민들에게 허락된 귀중한 여행의 기회(또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에에자나िका’와 전혀 다른 개념이었지만 부적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계기로 가끔 폭발적·열광적으로 유행한 점에서 (그리고 평상시에 억압받았던 민중들의 해방 욕구가 그런 식으로 폭발된 점에서도) 흔히 혼동된다.

또 하나 ‘요나오시’와 관련된 사상으로 토착화·토속화된 미륵신앙과 ‘미륵세상(ミロクの世)’ 관념을 들 수 있다. ‘미륵세상’은 당대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히 억압되던 민중들의 소원이 충분히 실현되는 이상적 세상의 표현이다. 미륵세상이 도래하기 직전에는 큰 재난이나 천변지이가 일어난다는 관념도 일반적인 것이다. 대지진에 의한 변동의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이 세계가 진흙바다가 되고 나서 미륵세상이 온다고 관념되기도 했다. 미륵세상 관념이 잇키와 우치코와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미륵세상이란 말이 민중투쟁 자료에 나타날 경우에도 지극히 소박한 민중의 변혁 소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³⁾

3) 安丸良夫,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151-153쪽 참조.

그러나 신종교에는 ‘미륵’, ‘미륵세상’ 관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중적 산악신앙인 후지코오(富士講) 5세 교자(行者; 지도자)인 게츠코 소주(月行剛仲)는 관백(關白) 고노에 모토히로(近衛基熙, 1648-1722)에게 상소를 올려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고 하는 요나오시 사상과 상통하는 ‘미로쿠(身祿=미륵)의 세상’의 도래를 주장했다.

그의 제자로 후지코오 6세 교자인 지키교 미로쿠(食行身祿, 본명: 이토 이에이 伊藤伊兵衛, 1671-1733)는 그 이름 자체가 미륵불에서 탄 것이다. 그는 가지기도(加持祈禱)를 부정하고 효도와 자비, 인정을 베풀, 정직·부족(不足)⁴⁾과 같은 일상적 윤리를 실행하고, 무익한 살생을 하지 않고,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서로 협력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아랫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가업에 힘쓰면 선원대보살(仙元大菩薩; 신격화된 후지산(富士山))의 신의(神意)에 맞는다고 가르쳤다. 또 “남녀에 무슨 차등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여 남녀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쌀을 참보살이라고 하면서 신성시하고 후지산과 일체라고 주장했다. 미로쿠는 1733(享保18)년에 자기 집 앞에 계시판을 세워 ‘미륵 세상’ 도래를 통지해놓고 후지산의 예보시이와(烏帽子岩) 바위에서 단식행(斷食行)을 하면서 입정했다. 미로쿠의 입정은 가와라반(신문)을 통해 에도(江戸) 시민 에도 금방 알려졌다. 그 이후 후지코오는 미로쿠파(身祿派)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그의 계통에서 교파신도(教派神道)의 짓코교(實行教)·후소교교(扶桑教)와 마루야마교(丸山教) 등이 파생되었다.

‘요나오시’ 사상은 사회질서가 뒤집어지고 전환되기를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었으나 그것을 이론화·조직화·체계화시킨 것은 지식층·지배층이 아닌 일반 서민층 출신의 신종교 교조들이었다. 이 발표에서는 그러한 신종교의 대표적인 예로서, 천리교(天理教)·마루야마교(丸山教)·오오모토(大本)⁵⁾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부족(不足)은 남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의 욕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II. 일본 신종교와 ‘요나오시’

1. 천리교(天理教)⁶⁾

천리교는 아마토 지방(大和國) 쇼야시키 마을(庄屋敷村; 현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의 쇼야(庄屋)⁷⁾ 나카야마가(中山家)의 주부 나카야마 미끼(中山みき; 1798-1887)가 1838(天保9)년에 창시한 신종교이다. 10월 24일, 미끼가 갑자기 신들리고 “나는 으뜸의 신, 진실한 신이다. 이번에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강했다.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라고 말했다. 남편 켄베이(善兵衛)나 친척들은 온갖 변명으로 사양하려 했으나 결국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승낙했다(천리교에서는 이 날을 입교立教 기념일로 정함).

미끼는 순산의 신, 만병 치유의 신으로 민중들의 신앙을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높아지자 기존 종교인이나 의사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특히 1874(明治7)년 이후에는 관헌의 박해가 심해지고 미끼는 18회에 걸쳐 경찰에 끌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공인화(公認化)를 서두르는 간부들에 대해 미끼는 “법률이 두렵냐? 신이 두렵냐?” “신(月日)이 있어야 이 세계가 있다. 세계가 있어야 개개의 만물의 있다. 개개의 만물이 있어야 각각의 몸이 있다. 몸이 있어야 법률이 있나니 법률이 있어도 마음을 정함이 먼저니라.” 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1887(明治20)년 음력 정월 26일에 나카야마 미끼가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천리교는 대부분 신도가 ‘수훈’ 등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 구제받은 사람이 기

5) 일반적으로는 ‘오모토교(大本教)’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교단의 정식 명칭에는 ‘敎’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도 그것에 따른다.

6) 천리교의 기본적인 용어는 천리교 교회본부에서 일정한 한국어 번역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그것에 의거한다.

7) 쇼야(庄屋)는 부유하고 마을을 지도·대표하는 농가·지주 등의 유력자를 말한다. 에도시대에 그들은 영주에서 촌민에의 명령 전달, 촌민들의 청원 대변, 촌민의 단속, 마을의 토지 관리 등을 맡았다. 지역에 따라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 라고도 불렸다.

빠하여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포교한다는 식으로 빠른 속도로 교세(教勢)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1892(明治25)년에 고지현(高知縣) 출신의 사토미 찌타로(里見治太郎)가 부산에서 포교한 것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해외포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의 반면으로 천리교에 대한 공격·탄압도 한층 심해졌다. 예컨대 1896(明治29)년에는, 내무대신(內務大臣)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의 이름으로 천리교를 겨냥한 소위 내무성비밀훈령(內務省秘密訓令) 제12호⁸⁾가 내려지기도 했다.

미끼는 부자·권력자를 ‘높은 산’, 가난하고 힘없는 밑바닥의 사람들을 ‘골짜기’라고 부르면서 “높은 산에서 살고 있거나 골짜기에서 살고 있거나 같은 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높은 산은 모두를 뽐내고 멋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초기 천리교는 주로 주술적 행위로 병을 고치고 의약을 방해하는 행위, 교회에서 남녀가 “혼효(混淆)”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점 등이 지탄을 받았지만 인간평등·남녀평등과 그 근거가 되는 천리교의 신화체계 내부에 명치국가의 천황제 절대주의와 그것을 지행하던 국가신도와 근본적으로 서로 융납지 못한 요소가 포함되고 있었다.

천리교에서는 ‘요나오시’를 통해 실현되는 이상세계를 ‘즐거운 삶(요키구라시)’

8) 내무성비밀훈령(內務省秘密訓令) 제12호: 1896(明治29)년 4월 6일에 내무대신(內務大臣)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의 이름으로 선포된 내무성 훈령을 말한다. 천리교를 비롯한 민간 종교단체의 단속 감시를 지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천리교의 신도들을 한 당(堂)에 모여 남녀가 뒤섞여 자칫하면 풍속일 어지럽힐 소행을 저질거나, 혹은 신수(神水)·신부(神符)를 부여하여 우매한 사람들을 광혹(狂惑)시키고 마침내 의약(醫藥)을 그만두게 하고, 혹은 함부로 기부를 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점차 만연될 경향이 있으니 그것을 금일에 제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경찰의 시찰을 엄밀히 하고 시의(時宜)에 따라 공연히 회장에 임하고, 혹은 음밀한 수단을 써서 비행을 들추어냄으로써 그 형법, 경찰령(警察令)에 걸리는 것은 즉시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필요에 따라 기도·설교를 중지시키거나 혹은 제한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적절한 방법을 써서 그 단속을 엄중히 하고 특히 금전 모집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주의를 주밀하게 하라. 또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라. 아울러 신불(神佛) 각 종파에서 금염기도(禁厭祈禱), 풍기 및 기부금에 관해서 천리교회 못지않은 폐해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은 단속일 실시하라.”

으로 표현한다. 이 개념을 축으로 병의 치유와 마음공부, 인생의 목표와 역사의 목표, 인간관, 역사관, 생사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천리교는 어버이신 천리왕명(天理王命; 텐리오오노미코토)이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즐거운 삶’의 세상은 기후가 순해지고 농민들은 풍년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람은 병들지 않고 일찍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으로서 형제자매이며 남녀·빈부·신분 등의 차별 없이 평등이다. 인간의 몸은 신에게 빌려준 것(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빌린 것)이다. 오직 혼만이 원래 자기 것이고 불멸하며 즐거운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윤회전생을 거듭한다고 한다. 천리교에서 죽음을 ‘출직(出直; 데나오시)’라고 부른다. 즉 (세상에) 다시 나오기, 다시 시작하기라는 뜻이다. 죽음이란 마치 현옷을 벗어던지고 신에게 새로운 옷을 빌리고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한다.

2. 마루야마교(丸山教)

마루야마교는 무사시 지역 이나다 마을(武藏國稻田村; 현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이나다마치稻田町 다치바나군橘樹郡)의 농민 이토 로쿠로우베이(伊藤六郎兵衛, 1829-1894)가 생가에서 전해져 내려온 후지코오(富士講)을 부흥·개혁시킨 신종교이다. 후지코오는 일본의 산악신앙에 하나로 후지산(富士山)의 신을 신앙한다. 후지 신앙은 에도 시대에 대중화되면서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 지방에서 유행했다. 앞에서 본 지키교 미로쿠(食行身祿)도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로쿠로우베이는 1870(明治3)년에 후지산의 신에게 제사를 받아 “천하태평(天下泰平)을 위해 널리 사람을 구제하리라”라는 소원을 세우고 개교(開教)하기에 이르렀다.

마루야마교는 후지코오의 전통을 따라 후지산을 산명등개산(山明藤開山) 또는

후지 센젠(富士仙元) 등으로 불러 신격화하고 그것을 태양신과 동일시했다. 마루야마교의 특징은 신국사상(神國思想), 농본주의(農本主義)와 반문명(서양근대)주의가 결부되는 점이다.

로쿠로우베이는 “야소(耶蘇)는 (태양을 가리켜) 기계 램프라고 말하지만 일본국은 천국(天國)·일국(日國)이라고 한다.” 라고 서구문명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했다. 즉 서양인은 (일본과 달리) 태양의 신성함을 모르고 큰 기계장치의 램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텐노(天皇)를 ‘텐노(天農)’라고 쓰면서 농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증하는 세상의 주재자로 표현했다. 이것은 동시에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 하지 않는 현실의 천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했다. 또 로쿠로우베이는 “타이헤이(泰平)을 거꾸로 보면 헤이타이(平泰=兵隊)가 된다.” 따라서 “텐-카-타이-헤이”(천하태평)을 거꾸로 읽으면 헤이-타이-카-텐(군대가 이기지 못한다)이 된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즉 군대와 천하태평은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이며 소박하지만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다.

1880년 전후의 몇 년 간, 대장경(大藏卿)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835-1924)는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후의 인플레이션 억제, 지폐 환수 정책을 폈다. 이것에 의해 고치와 쌀 등의 가격이 하락되고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다. 그 이른바 ‘마쓰카타 디플레이션’ 기간(1882-1890)이 마루야마교의 절정기였다. 마루야마교는 시즈오카현(靜岡縣)·아이치현(愛知縣)·나가노현(長野縣)·가나가와현(神奈川縣)을 중심으로 융성했다. 마루야마교 신자는 문자 그대로 “세계(世界)는 몰멸(沒滅)되고, 천지(天地)는 궤열(潰裂)되며, 인축(人畜)은 실개(悉皆) 망한다. “조만간 이 세상이 멸망하고 태양이 뒤집힌다.” “내년 5월에 이르면 혼돈된 세계가 되고, 사람과 가축 모두 몽땅 사망하고, 오로지 마루야마코(丸山講)의 신도들만 생존하고 청량(淸良)한 세상이 된다.” 라고 믿고 경작을 포기하고, 재산을 전부 팔아버리고, 징세를 납부하지 않고, 징병을 피하고 종교적 열광에 참가해 왔다.⁹) 즉 이것

은 민중의 태업이자 소극적 저항이며 근대화=자본주의적 원자(原資) 축적 과정에서 몰락해가는 민중들이 로쿠로우베이가 주장한 반 서구화·반 근대·반 군비확대와 ‘오히라키(お開き)’ 즉 농본주의·평화주의의 새로운 세상이 연다고 하는 가르침에 정중히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은 마루야마교는 1990명(明治20년대 중반(1990)년경)이후 급격하게 세력을 잃었다. 마루야마교는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1787-1856)의 맥을 이은 호토쿠샤 운동(報徳社運動)과 접근해서 명맥을 유지했다, 오늘날 마루야마교로 평화주의·반핵운동을 추진하는 종교로 오늘에 이른다.

3. 오오모토(大本)

오오모토는 데구치 나오(出口なお, 1837-1918)와 그 사위인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1871-1948)의 두 명을 교조로 삼는 특이한 종교이다(각각에 대해서는 나오를 開祖, 오니사부로를 聖師로 존칭한다). 데구치 나오는 단바 지역 가미코야마치(丹波國上紺屋町, 현 교토부京都府 후쿠치야마시福知山市)에서 태어났다. 나오는 10살 때에 아버지를 여위고 쌀가게, 옷가게 등에서 일하고 1855(安政2)년에는 목수인 세이고로(政五郎)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가난과 인간관계 갈등의 연속이었다. 1892(明治25)년 음력 정월 5일(양력 2월 3일)에 나오는 본격적으로 ‘간(艮)의 금신(金神)’이라고 하는 신과 접신(接神) 체험을 했다. 오오모토는 이날을 개교(開教)의 날로 정하고 있다.

1898(明治31)년, 사전에 여러 차례 계시가 있었던 오니사부로(王仁三郎, 당초는 우에다 기사부로上田喜三郎)과 첫 만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오모토 교단

9) 村上重良·安丸良夫, 『民衆宗教の思想』, 650쪽 참조.

에서는 개명적·진취적인 오니사부로와 반서구적·반근대적이고 토속적인 나옴(를 추종하는 원리주의적인 구래의 간부들)와의 내부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1914(大正5)년 10월, 나옴에게 “오니사부로야말로 미륵신”이라는 신탁이 내림으로써 나옴이 오니사부로의 신격을 인정했다. 이것으로 교단 내부에서 오니사부로의 권위가 확정되고, 나옴이 히라가나로 적은 신의 계시(오후데사키)를 오니사부로가 국한용문으로 고쳐 쓴 『오오모토 신유(大本神諭)』로 발표했다.

1918(大正7)년 11월 6일에 개조 테구치 나옴이 81세로 서거했다. 1919(大正8)년, 오오모토는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을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포교 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 해군기관학교 교관의 아사노 와사부로(淺野和三郎)가 신자가 되면서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다이쇼 유신(維新)’을 외치고 종말론을 크게 선전했다.

그러나 오오모토의 종말론과 고급장교가 다수 입교한 점에 위기감을 느낀 당국은 1921년 1월에 당국은 불경죄와 신문지법 위반으로 오오모토 교단을 수색하고, 테구치 오니사부로와 간부들을 검거했다(제1차 오오모토 사건).

사건 후 오니사부로 부부는 교주·교주보를 물려나 장녀 테구치 나옴(出口直日, 1902-1990)에 교주 자리를 물려주었다. 오니사부로는 발행 금지가 된 『오오모토 신유』를 대신하는 교전으로 『영계 이야기(靈界物語)』의 구술필기를 시작했다.

또 오니사부로는 1924(大正13)년에 무도가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盛平, 1883-1969, 합기도 개조)들을 데리고 몽골로 건너갔다. 달라이라마의 화신을 자칭하고 마적(馬賊) 수령인 노점괴(盧占魁)와 협력해서 몽골에 신국가를 건설하려 했으나 군벌 장쥘린(張作霖)의 군대에게 체포되고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일본에 귀국한 오니사부로는 1925(大正14)년에 인류애선(人類愛善)·만교동근(萬教同根)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애선회(人類愛善會)를 설립하고 중국의 홍만회

(紅卍會), 이란의 바하이교, 조선의 보천교(普天敎)¹⁰⁾, 베트남의 가오다이교 등과도 교류·제휴하는 국제운동을 일으키고, 교단으로 에스페란토 운동도 추진했다.

한편 오니사부로로는 1934(昭和9)년에는 우파계 사회단체인 쇼와 신생회(昭和新生會)를 조직하고 총재에 취임했다. 이와 같이 그는 강렬한 국수주의와 세계주의·보편주의 사이의 진폭이 크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 당국은 오오모토 및 오니사부로의 의도가 국가 전복에 있다고 간주했다. 1935(昭和10)년, 치안유지법·불경죄에 의해 오오모토에 재차 철저한 탄압을 했다(제2차 오오모토 사건). 오니사부로를 비롯하여 오오모토 간부 61명이 기소되고, 신전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며 교단시설은 모두 파괴되었다. 인류애선회 등 관련 단체도 모두 해산되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치안유지법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불경죄는 대심원까지 가다가 결국 일본의 패전과 형법 개정으로 불경죄 자체가 소멸되었다.

오니사부로로는 1942년에 보석되고 그 후는 도예에 열중하는 나날을 보냈다. 변호사들이 사건의 배상에 대해 상의하고 있을 때 오니사부로로는 “이번 사건은 신의 섭리다. (……) 배상을 요구해서 감히 패전 후 국민의 고혈을 짜는 짓을 해서는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것으로 인해 오오모토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III. 결론

이 원고에서는 일본 개벽종교로 ‘요나오시’를 전면에 내세운 천리교·마루야마

10) 1924년부터 보천교와 오오모토는 서로 제휴·교류하고 있었다. 그해 9월 3일에 보천교 간부 김승민(金勝玟)이 오오모토 본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오오모토과의 관계가 생겼다. 이에 대해 오오모토도 간부 마쓰무라(松村眞澄)와 안도(安藤唯夫) 두 사람을 보천교 본소에 파견하고 정식으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김철수 지음, 『잃어버린 역사 普天敎』 150쪽 참조)

교·오오모토를 다루었다. 원래 ‘요나오시’는 지진, 벼락을 피하는 주문이자 흉한 일을 경사로 바꾸는 것, 세상이 나쁜 상태를 좋게 고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에도시대 중기 이후, ‘요나오시’는 곤궁하고 억눌린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개념이 되고 요나오시 잇키(봉기·폭동)이나 우치코와시와 결부되었다. 또 ‘요나오시’ 관념이 ‘에에자나िका’, ‘오카게마이리’라고 불리는 민중의 소동, 열광적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요나오시’ 관념은 처음에는 민중의 소원 수준에 머물고 사상적 깊이나 체계성·조직성·지속성이 별로 없었지만, 민중종교의 교조들은 그것을 건져내고 심화시키고 체계화·조직화함으로써 보편성을 지닌 지속적인 종교운동으로 승화시켰다. 그들이 ‘요나오시’를 기초한 사상은 각각 다르다. 나카야마 미끼(천리교)는 독자적인 창조신화와 그것에 기초한 이상세계의 약속이며, 이토 로쿠로 우베이(마루야마교)는 전통적인 후지코오 신앙과 결부된 미륵사상이며, 데구치 나오·오니사부로(오오모토)에서는 재해석된 기기신화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강요되고 메이지 정부의 강권에 의해 추진된 서구근대화·자본주의화·산업사회화·제국주의·천황 신격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현실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그 대신으로 인간의 평등과 존엄, 농민을 비롯한 하층 민중들이 풍년과 온순한 기후, 무병무사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이상세계의 도래를 설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메이지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천황 신격화, 국가신도와 부딪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박해·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1945년의 태평양 전쟁 패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Abstract

The *Kaebyōk* (Great Opening) Movement of Japanese New Religions

—Focusing on the ‘Yonaoshi’

Research Professor, Yagyū Makoto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new religions that can be called the ‘kaebyōk (Great Opening) religions’ in the Japanese variant. These new religions, among numerous new religions that arose from the period of the collapse of the Bakuhān (幕藩) system of Tokugawa (徳川) from the 19 century to early modern times in Japan, particularly rejected the old social order of feudalism and resisted the calls for Western modernization that the Meiji government strongly promoted, instead advocating a new ideal world in a fashion that was unique to these religion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include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e idea of Yonaoshi (世直し, “straightening the world”) is examined. This concept contains the desire to transform the world that arose spontaneously among the poor and oppressed as the system of feudalism was undermined and faltered. The Yonaoshi was originally a mantra calling for misfortunes to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good, but it became a key precept among those who were dissatisfied with system of the feudalism and who dreamed of a new world from around the mid-period of Edo. These aspirations materialized in events such as ‘itki (一揆)’, uprisings and riots against the ruling class by the common people, or ‘uchikowashi (打壊し)’, whereby the houses and warehouses of wealthy merchants, landlords, and

usurers were attacked and destroyed, or ‘eejanaika’, spontaneous disturbances, or ‘okagemairi’, that took the form of a pilgrimage movement.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Hujiko (富士講) as a folk faith movement that embraced and systematized such energy and resistance among the downtrodden and advocated a vision of a new world and proposed the idea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This paper also sought to identify the leaders who arose among the masses such as Nakayama Miki (中山みき), Ito Rokurobei (伊藤六郎兵衛), Deguchi Nao (出口なお), and Deguchi Onisaburo (出口王仁三郎), as well as recording the religions of the Great Opening such as Tenri-kyo (天理教), Maruyama-kyo (丸山教), and Oomoto-kyo that they created.

Third, this paper examined the new ideal worlds proposed and the new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ns of the Great Opening. It also investigated how the masses sought to implement their ideals, and how they protested and reacted against the drive for Western modernization and the national Shinto system that the Meiji government advocated. All groups among the masses bitterly criticised the existing social system where the strong abused and exploited the weak, and instead, they argued for the equal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s. Predicting the coming of a bright new world where ordinary people would enjoy years of plenty, mild climates, the absence of illness and death, and happiness, they devoted all their efforts to aiding the many displaced persons who existed in this chaotic period of the history.

Keywords: yonaoshi (“straightening the world”), religions of Great Opening (*kaebyōk*), Tenri-kyo (天理教), Maruyama-kyo (丸山教), Oomoto-kyo (大本教)

논문 투고일: 2019.07.18. 심사 종료일: 2019.08.15. 게재 확정일: 2019.08.15.

참고 문헌

- 김철수. 2017. 『잃어버린 역사 普天教』. 상생출판.
- 정명수. 2000. 『대한천리교사 ①』. 서울: 미래문화사.
- 天理大学おやさと研究所 編. 1977. 『天理教辞典』. 天理: 天理教道友社.
- 『天理教原典集・附・天理教教典』. 1977. 天理: 天理教教会本部.
- 小滝透. 1997. 『神々の目覚め—近代日本の宗教改革』. 東京: 春秋社.
- 村上重良・安丸良夫. 1971. 『民衆宗教の思想・日本思想体系67』. 東京: 岩波書店.
- 安丸良夫. 1999.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東京: 平凡社.